

2023. 6. 6.(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6월 5일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문화본부 문화재관리과

문화재관리과장	김 흥 진	2133-2650
문화재관리팀장	윤 선 희	2133-2652
담 당 자	이 혜 숙	2133-2658
남산골한옥마을 한옥운영실장	이 재 진	6358-5535
남산골한옥마을 체험전시팀장	정 경 화	6358-5536
관련 누리집	www.hanokmaeul.or.kr 상단 <메뉴> → 좌측 <전시>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7 쪽

남산골한옥마을 전통공예관 새단장 마치고 〈서울시무형문화재 장인전〉 개최

- 남산골한옥마을 전통공예관 새단장 후 개막전 〈서울시무형문화재 장인전〉 개최
- 오는 10월 1일까지 서울시 무형문화재 장인 4인의 작품 이어서 선보여
- 단청, 민화, 목가구 등 통해 서울시무형문화재 및 장인들을 알리는 계기 마련
- 전시된 작품은 전시 종료 후 구매도 가능... 전통공예 부활의 계기가 되길 기대

- 서울시 남산골한옥마을(중구 퇴계로 34길 28) 내 전통공예관이 새단장을 마치고 관람객을 맞이한다. 개막전으로 〈서울시무형문화재 장인전〉을 5월 23일(화)부터 10월 1일(일)까지 선보인다.
- 남산골한옥마을의 전통공예관은 올해 초까지 카페와 기념품숍으로 운영 되었으며, 최근에는 기념품숍만 운영되어왔다.

- 개막전인 〈서울시무형문화재 장인전〉은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무형문화재 장인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단청 ▲민화 ▲목가구 ▲창호 4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네 명의 장인(단청장 양용호, 민화장 정귀자, 소목장(가구) 김창식, 소목장(창호) 심용식)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 첫 전시는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31호 단청장 양용호의 전시다. 5월 23일(화)부터 6월 25일(일)까지 개최된다. 양용호 장인은 2003년 9월 28일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되었으며, 전국을 무대로 천 여 점의 문화재 단청작업을 해왔다.
 - 단청은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의 다섯가지 색을 기본으로 여러 가지 중간색을 만들어 목조건축의 천정이나 기둥 등에 문양을 그려 넣은 것을 말한다. 목조건축의 장식 외에도 조형품, 공예품, 석조건축, 불화 등에 채화한 것도 넓은 의미로 단청에 포함된다.
 - 양용호 장인은 대표적으로 법주사 대웅보전, 쌍계사 대웅전, 조계사 대웅전·일주문, 광화문 등의 작업에 참여했다.

- 두 번째 전시는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18호 민화장 정귀자의 전시다. 6월 27일(화)부터 7월 28일(금)까지 진행된다. 정귀자 장인은 2022년 3월 24일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되었으며, 40여 년간 민화의 전승과 보급에 힘 써왔다.
 - 민화는 자유로운 기법으로 일반 시민들의 소박한 삶을 담은 그림이다. 짙은 한국적 정서를 바탕으로 익살스럽고 소박한 형태, 파격적인 구성, 뛰어난 해학미, 아름다운 색채가 돋보이는 그림을 발전시켜왔다.

- 한편, 민화장 정귀자의 작품은 ▲베트남 하노이 한국문화원(작호도)
▲일본 오사카 한국문화원(책가도) ▲불가리아 한국문화원(모란도) 등이
소장하여 한국 민화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로 알리고 있다.

- 세 번째 전시는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26호 소목장(가구) 김창식의
전시다. 8월 1일(화)부터 9월 3일(일)까지 진행된다. 김창식 장인은
2001년 10월 23일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되었으며, 각종
전승공예전에서 수상을 하였고 60여 년간 소목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 소목장(小木匠)이란 건물의 문과 창문, 장롱, 궤, 경대 등 목가구를 제
작하는 기술과 그 기능을 가진 목수를 말하며, 그 명칭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왔다.
- 김창식 장인은 일본 오사카, 미국 로스엔젤레스, 영국 런던, 러시아 모스
크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등 세계 각국에 위치한 한국문화원
및 문화 홍보원의 초대전에 참여했다.

- 마지막 전시는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26호 소목장(창호) 심용식의
전시로 9월 5일(화)부터 10월 1일(일)까지 진행된다. 심용식 장인은
2001년 10월 23일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되었으며, 궁궐이나
사찰, 전통한옥에 쓰이는 창호를 제작했다.
- 궁궐 건축에는 벽면의 대부분이 창호로 되어있는데, 대목(大木)이 건축의
구조 부분을 담당한다면 소목은 수장과 장식 부분을 담당한다. 창호장은 소
목장으로 분류되는데, 지금은 소목 중에 많은 분야의 기능이 단절되거나
사라지고 가구장과 창호장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 심용식 장인이 참여한 작업으로는 대표적으로 창덕궁 인정전, 창경궁 경춘전이 있으며 경주 불국사, 순천 송광사, 청도 운문사등 전국의 큰 법당의 창호를 제작했다.
- 한편, 〈서울시무형문화재 장인전〉은 작품의 구매도 가능하다. 단순 전시를 넘어 판매까지 연결 짓는 갤러리로서, 전통공예 장인들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자 한다. 관람객들은 전시 중 선점한 작품을 매 전시종료 후 구매할 수 있다. 개별 공방에 가지 않아도 한 곳에서 다양한 장인들의 작품을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작품 구매와 관련된 문의는 남산골한옥마을 체험전시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 〈서울시무형문화재 장인전〉의 입장료는 무료이며, 화요일~일요일 10:00~18:00까지 관람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관일이다.
- 자세한 내용은 남산골한옥마을 누리집(www.hanokmaeul.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작품 구매 및 기타 문의 사항은 한옥마을 체험전시팀 (02-6358-5533)으로 연락하면 된다.
- 김흥진 서울시 문화재관리과장은 “남산골한옥마을 전통공예관에서 연간 다양한 공예전시를 개최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 공예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전할 계획이다”며 “남산골한옥마을 전통공예관의 전시가 명맥이 단절되어가는 우리 공예를 다시금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산골한옥마을 전통공예관 개막전
‘서울시무형문화재 장인전’

- 일 시 : 2023년 5월 23일(화) ~ 2023년 10월 1일(일)
10:00~18:00 * 월요일 정기휴관일
- 작가명 : 양용호, 정귀자, 김창식, 심용식
- 장 소 : 남산골한옥마을 전통공예관
- 입장료 : 무료
- 주 최 : 서울특별시
- 주 관 : (주)인사이트모션
- 문 의 : 남산골한옥마을 누리집 www.hanokmaeul.or.kr 02)6358-5533



서울시무형문화재장인전 포스터 ©남산골한옥마을

붙임2-2

서울시무형문화재 장인전 이미지



단청장 양용호



단청 <뒷빚>



민화장 정귀자



민화 <쌍토도>



소목장(가구) 김창식



소목(가구) <화류은입사함세트>



소목장(창호) 심용식



소목(창호) <비늘문양 민꽃살 파티션>